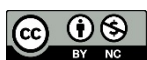




읽기 문항 유형별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안혜선(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배지영(공주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ch. 12, 2022
Revised: April 20, 2022
Accepted: April 27, 2022

Hyesun Ahn (1st author)
Teacher, Daejeon Dunsan
Girls' High School
carriahn@naver.com

Jiyoung Bae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English
Education, Kongju Nat'l Univ.
Tel: 041-850-8194
jybae423@kongju.ac.kr

*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ABSTRACT

Ahn, Hyesun and Jiyoung Bae. 2022.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by different reading question typ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418-440.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e of reading strategies based on the question type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study analyzes learners of different reading proficiency levels using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of the five different question type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two hundred eighty six students from third grade in a public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Daejeon area. The questionnair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proficiency using 24 questions. Strategies are selected from the Survey of Reading Strategies or SORS of Mokhtari and Sheorey (2002) and the questionnaires of Ikeda and Takeuchi (2000). Data collected from the experiment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SPSS(v.26).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t use of reading strategies among the students in the three different English reading achievement levels, one-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ach of the different group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pper, middle, and lower proficiency groups used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for each question type,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reading strategies used by each group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each question type. Second, the upper and middle proficiency groups are able to use the appropriate reading strategies depending on each question typ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understanding the pattern of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based on the question type and English reading achievement level is not only important in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but also in having students prepare for their reading test.

KEYWORDS

reading strategies, reading proficiency, question type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뿐 아니라 학교의 정기고사에서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시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음성언어와 관련된 수업보다 읽기 영역 수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읽기는 현실적으로 언어 노출의 통로로서 교육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안혜선, 배지영 2021, 이상기 외 2021, 이재근, 정은숙 2015). 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들도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읽기 영역 학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전의 영어 읽기 수업은 주로 영어 어휘와 문장 구조, 문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방법을 통해 전달되면 학생들은 주어지는 지식을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지식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하고 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스스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읽기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김일용 2016, Casanave 1988). 학습자들은 시험 문항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그 유형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전략적 읽기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외국어 능력을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Devine 1984, Hudson 1982). 아무리 문법적 지식이나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라도 적절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읽기 능력 구성 요소 중 적절한 전략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정혜 2014, 박지윤 2018, 송희심 1998, Song 1997).

최근의 외국어 교수 이론의 관심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특성에 초점을 둔 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언어학습 분야에서 학습자 및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개별 전략의 정의와 전략 성격에 따른 유형의 분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전략 사용 측정 도구, 전략 활용 언어 교수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tern 1975, Naiman, Rohlic and Todesco 1978, Hosenfeld et al 1981).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의 EFL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읽기와 읽기전략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이효용 1994, 박영예 1999, 이수진 2007)와 인지 전략과 상위인지전략 가운데 몇몇의 개별적 전략 사용 효과에 관한 연구(신창옥 2005)가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분류, 전략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어 성취도와 언어학습 전략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효용 1999, 이수진 2007, 배지영, 김규미 2018).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설문지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의 빈도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Cohen 1998). 즉,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읽기 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략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설문 조사가 될 수 있다. Cohen(1998)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실시되는 전략 사용 설문 조사는 피험자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자 측에서도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 사용 빈도수를 적게 또는 많이 말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에 관련된 논문에서 다루어진 학습전략들이 Oxford와 Cohen(1990)이나 O'Malley와 Chamot(1990)가 정의하는 학습전략과 같이 기억, 인지, 보상, 사회·정의적 전략 등 영어의 4가지 기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읽기영역의 전략을 볼 수 없

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수준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영주 2008).

국내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읽기 수준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 비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읽기전략 사용 파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애란(2015)의 연구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수준을 비교하였지만, 실제적인 읽기전략 사용 비교에서는 중위권과 하위권 간의 전략 사용만 다루어져 학습자들의 수준별 읽기전략 사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자들에게 과업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인 읽기전략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문제 유형에 따른 영어 읽기 성취도별 읽기전략 사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읽기전략 사용의 중요성에 비해 영어 읽기 시험에서의 실제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에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고, 특히 읽기 성취도가 다른 학습자들이 문제 유형별로 사용하는 전략 비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영어 읽기 성취도에 따라 전략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읽기전략 양상을 문항 유형별로 살펴보고, 영어 읽기 성취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과 빈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문항 유형별로 어떤 읽기전략을 사용하는가?

둘째,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에는 문항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읽기전략과 측정 도구

읽기는 전략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은 독자가 텍스트 자체만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용하는 일종의 계획을 가리킨다(이혜인 2017). 즉, 읽기전략은 독자가 읽기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인지 과정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맞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획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읽기 과업을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정신적 과정들을 사용하며, 읽기 지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전략을 사용한다(Cohen 1990).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유능한 독자들의 읽기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Anderson 2004, Pressley 2002, Snow 2002) 능숙한 독자들 사이에서 발견된 읽기전략을 읽기 수업 현장에 지도하여 효과적인 읽기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Pearson 1993). 구체적으로 읽기전략은 독자가 어려운 구문이나 어휘를 대할 때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하거나 어형적 정보를 활용하고, 사전을 찾거나 수사적 규칙이나 담화유형을 보고 글의 짜임새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Hosenfeld et al. 1981). 즉, 다양한 읽기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독자가 실제로 읽기 과정 중에 이해를 촉진하거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기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능숙한 독자와 능숙하지 않은 독자 간의 전략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능숙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Mokhtari와 Sheorey(2002)는 영어 비원어민이 읽기 과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읽기전략 설문지(SORS: Survey of Reading Strategies)를 제작하였다. Oxford(2002)나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주로 영어의 4가지 기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SORS는 보다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측정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Mokhtari와 Sheorey(2002)는 읽기전략을 총체적 읽기전략(Global Reading strategies: 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lem Solving Strategies: 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port Reading Strategies: SUP)으로 분류하였다. 총체적 읽기전략(GLOB)은 학습자에 의해 의도적이고 신중히 계획된 전략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읽기를 감시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은 학습자가 읽기 지문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학습자가 사용하는 행동이나 절차이다. 국지적이고 집중된 전략으로 본문의 읽기를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지원적 읽기전략(SUP)은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지원 전략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Ikeda와 Takeuchi(2000)는 읽기전략 사용 설문에 실제 과제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Kimura(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읽기전략 측정 도구를 기초로 하여 EFL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유능한 독자는 글 읽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동안 주도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유연하게 읽기전략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능숙한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선택하여 읽고,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문맥의 단서들을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시 글을 읽어보거나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등의 읽기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Snow 2002). 이렇듯 전략의 사용은 성공적인 언어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평생의 학습자들이 될 수 있게 한다(Allwright 1990). 또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읽기전략들을 사용하여 읽기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 읽기전략을 사용한다(정길정 외 2016). 따라서 숙련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고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Oxford 1996, 2002).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영역과 문항 유형

201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기존의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로 시행되었으며 본인 성취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영어 절대평가는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학교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 지식, 대화/담화나 글의 내용 이해력과 사고력, 영어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영어시험 문제 중 읽기 문제는 각각 총 28문항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어영역 출제 문항 세부 분석표

평가요소	
중심 내용 파악	글을 읽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화와 담화 또는 글의 주제, 제목, 요지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부 정보 파악	글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 도표·그림 등의 시각자료와의 일치/불일치, 화자의 부탁할/한 일, 할/한 일, 숫자 정보와 같은 기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논리적 관계 파악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 같은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대화자와의 관계와 장소를 파악하거나 대화·담화의 5W1H(누가, 어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맥락 파악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견, 목적, 주장, 글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경 파악,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를 글의 내용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접 쓰기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찾기, 글의 순서 파악, 문단 요약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형식·어휘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 의미적 연관성을 통해 언어 형식의 적합성이나 어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문맥에 적합한 언어 형식이나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수능 모의평가 6월과 9월의 학습 내용은 같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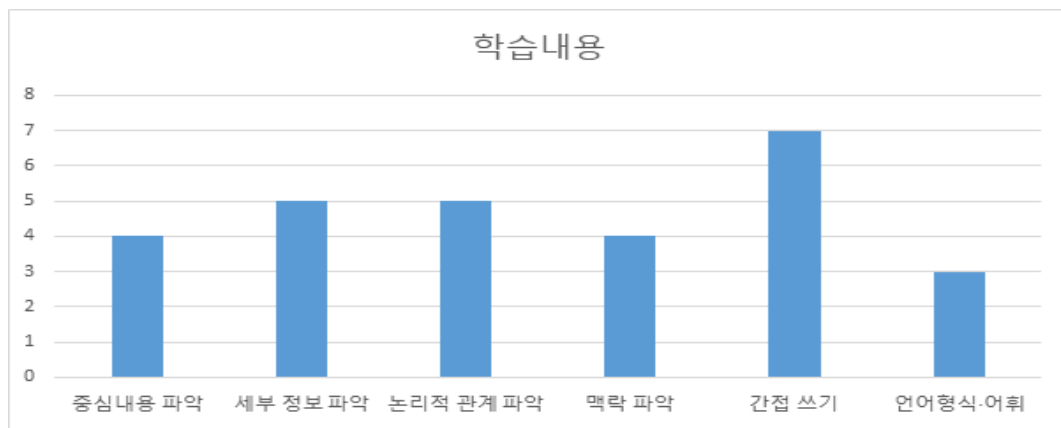


그림 1. 학습 내용별 문항 개수

학습 내용별 출제 빈도에서는 총 28개의 읽기 지문 중 간접 쓰기가 7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수능 영어 읽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에게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묻는 문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쓰기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간접 쓰기 유형은 글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유형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들에게 글의 중심 내용 파악뿐 아니라 문장 간 논리적 관계,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응집성을 이해하는 학습과 전략에 대한 교수가 요구된다. 뒤이어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가 각 5문항씩 출제되었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광고문과 같은 형식의 다양한 글을 읽은 후 글에 제시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글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추론하려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 파악하기와 글의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각각 4문항씩 출제되었다. 학습자들은 맥락 파악하기 유형에서 글의 배경뿐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여 글의 목적이나 필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을 추론해보려는 읽기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문항은 문법 및 어휘 문제이다. 문법 문형에서는 학습자들이 전후 문장뿐 아니라 글의 맥락을 이해하며 문장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에 있어 문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어휘 문제에서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의 흐름과 중심 내용을 고려해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에서 문항 유형을 선별하여 읽기 시험지를 구성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대전광역시 소재 인문계 D 여자고등학교 3학년 14개 학급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자의 92% 정도가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해 주로 교과서나 문제지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대부분이 독해영역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영어 공부의 목적을 대부분 내신 점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읽기 문제지와 영어 읽기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는 7교시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후 각 학급당 약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유형의 문제지를 제공하고 각 유형마다 제시된 문제 2개를 푼 뒤 영어 읽기 설문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성의 없이 응답한 11명의 학생을 제외한 286명의 응답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6월과 9월에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이하 연합평가)

영어 영역의 읽기 점수를 학생들의 읽기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6월과 9월 연합평가 점수의 평균을 토대로 1~2등급의 상위 그룹 73명(25.5%), 3~4등급의 중위 그룹 121명(42.3%), 5등급 이하의 하위 그룹 92명(32.2%)으로 나누었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및 연합평가의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점수별 9등급으로 나뉘고 있으며, 원점수별 성취등급은 표 2와 같다.

표 2. 원 점수 별 성취 등급

성취 등급	1	2	3	4	5	6	7	8	9
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읽기전략의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와 2021년 6월과 9월에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가 영어영역 읽기 28문항을 문항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 유형 순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영어 읽기 시험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의 경우 Mokhtari와 Sheorey(2002)의 읽기전략 설문지 조사(SORS)와 Ikeda와 Takeuchi(2000)의 EFL 읽기를 위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략들을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정된 전략들은 SORS의 분류 기준에 맞게 총체적 읽기전략(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으로 분류하였다. 학습 전략 문항에 대한 빈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영어 읽기 시험지는 내용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2문제씩 제시하여 총 10문제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영어 읽기 시험지는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관련한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제가 5문제, 단어나 구, 절, 문장 또는 연결어가 들어갈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4문제, 글의 순서 파악하기 3문제,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가 3문제,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2문제의 빈도를 보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항 유형부터 5가지를 선정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읽기 시험지에는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를 각각 Type A ~ Type E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같은 출제 빈도를 보인 문항 유형은 배점이 높은 3점 문항이 있는 문항 유형을 선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은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 데이터의 수집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광역시 D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영어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구했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은 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응답을 마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문항 유형에 대해 학습자들이 사용한 읽기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297명의 자료는 엑셀로 코딩 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과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 그룹의 평균, 표준 편차 및 표준 편차 오차를 설명하였다. 상·중·하 그룹에 따른 변수(GLOB, PROB, SUP)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세 집단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증은 Scheffe's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습자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3은 리커트 5점 척도의 검사지를 활용해 읽기전략을 각 문항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3.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사용 양상(N = 286)

문항 유형	읽기전략	M	SD	Total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총체적 읽기전략	2.93	.50	2.97
	문제해결 읽기전략	3.33	.47	
	지원적 읽기전략	2.65	.59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총체적 읽기전략	3.22	.49	3.63
	문제해결 읽기전략	3.59	.55	
	지원적 읽기전략	3.28	.72	
글의 순서 파악하기	총체적 읽기전략	3.29	.65	3.35
	문제해결 읽기전략	3.61	.67	
	지원적 읽기전략	3.15	.74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총체적 읽기전략	3.13	.73	3.20
	문제해결 읽기전략	3.48	.83	
	지원적 읽기전략	2.99	.63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총체적 읽기전략	2.93	.60	3.08
	문제해결 읽기전략	3.43	.62	
	지원적 읽기전략	2.88	.63	

학습자들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평균은 2.97에서 3.63 사이에서 나타나 학습자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의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유형에서는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유형에서 평균 3.63으로 가장 높은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글의 순서 파악하기(M =

3.35)와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M = 3.20$) 순의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다. 가장 많은 전략 사용을 보여준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 유형($M = 3.63$)과 글의 순서 파악하기($M = 3.35$) 문항 유형은 문제를 푸는데 있어 추론적 이해와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읽기 과정에서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항 유형에서는 가장 적은 전략 사용 양상($M = 2.97$)을 보였다.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항 유형에서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글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나 추론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독해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문항 유형에서 사용한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매겨보면 빈칸 내용 추론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문항 유형에서는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총체적 읽기전략(GLOB), 지원적 읽기전략(SUP) 순의 사용을 보였다. 이는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2018)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모든 유형의 읽기전략 사용 빈도 중 문제해결 읽기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특성상 순수하게 글을 읽는 영어 읽기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의 읽기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읽기 과정의 이해를 돕기보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문제풀이식 독해 활동에 맞추어진 텍스트와 그에 맞는 읽기전략만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독해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만나게 될 텍스트에 맞는 적절한 읽기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습자들의 내용 일치/불일치 문항의 읽기전략 사용 순위는 표 4와 같다. 내용 일치/불일치에서는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의 사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학습자들은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M = 4.20$, $SD = .87$). 이어 모르는 단어를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론하기($M = 4.00$, $SD = 1.01$),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하기($M = 3.84$, $SD = 1.02$),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기($M = 3.81$, $SD = 0.00$),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 읽기($M = 3.70$, $SD = .95$) 순의 전략 사용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중심의 전략 사용은 내용 일치/불일치 문항 유형 지문의 속성과 문제 유형과 연관이 있다. 문항 유형의 특징 상 텍스트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와 선지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가려야 하는 문항이다. 학습자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한 읽기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텍스트에 표시를 하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는 지원적 읽기전략(SUP)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 전략의 사용($M = 3.70$)을 통해 학습자들이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읽어 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 학습자들의 내용 일치/불일치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순위	문항 번호	읽기전략	M	SD
내용 일치/불일치	1	PROB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 간다.	4.20	.87
	2	PROB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4.00	1.01
	3	PROB23	나는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한다.	3.84	1.02
	4	SUP19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3.81	.99
	5	PROB15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3.70	.95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 유형에서는 전체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학습자들은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형에서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해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M = 4.20$, $SD = .96$)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기($M = 4.07$, $SD = 1.02$), 모르는 단어에 대해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의미 추론하기($M = 3.97$, $SD = .99$), 연결사들에 초점을 맞춰 글을 읽는 전략($M = 3.97$, $SD = 1.07$)을 통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두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기($M = 3.92$, $SD = 1.02$)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총체적 읽기전략(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의 전략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읽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전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사용 순위도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 학습자들은 연결사에 초점을 맞춰 글을 읽는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4.17$, $SD = .16$). 뒤이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기($M = 4.09$, $SD = .81$), 각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기($M = 4.07$, $SD = 1.13$),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기($M = 3.99$, $SD = 1.06$),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맥락을 이용해 추론하기($M = 3.98$, $SD = .92$) 순의 전략 사용을 보인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 자체가 글의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이므로 학습자들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요한 단서가 되는 연결사에 초점을 맞춘 읽기전략을 통해 순서를 파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 전략과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요소에 주목하여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와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순위	문항 번호	읽기전략	M	SD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1	GLOB2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4.20	.96
	2	SUP19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4.07	1.02
	3	PROB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3.97	.99
	4	GLOB16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3.97	1.07
	5	PROB15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3.92	1.02
글의 순서 파악하기	1	GLOB16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4.17	1.06
	2	PROB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4.09	.81
	3	PROB17	나는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다.	4.07	1.13
	4	GLOB2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3.99	1.06
	5	PROB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3.98	.92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 사용 순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 읽기($M = 4.09$, $SD = 1.0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기($M = 4.07$, $SD = .86$),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힌트 얻어 추측하기($M = 3.99$, $SD = .89$),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기($M = 3.87$, $SD = .83$), 어려운 부분 반복해 읽기($M = 3.79$, $SD = .91$) 순의 전략 사용을 보인다. 총체적 읽기전략 중 연결어나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중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보면, 학습자들은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기($M = 3.95$, $SD = .99$),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 얻어 추측하기($M = 3.76$, $SD = .87$), 모르는 단어 넘어가기($M = 3.76$, $SD = 1.07$), 어려운 부분 여러 번 반복해 읽기($M = 3.67$, $SD = .96$), 연결어에 초점 맞춰 읽기($M = 3.63$, $SD = 1.10$) 순의 전략 사용을 나타냈다. 어휘 추론 문제에서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여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어휘 추론 문제 유형이 주어진 어휘의 단편적인 뜻보다 글 속에 제시된 어휘가 전체 문맥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하거나, 모르는 단어를 넘어가는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글의 흐름 뿐 아니라 사용될 어휘의 적절성을 파악하려는 전략 사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이때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여러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표 6.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와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순위	문항 번호	읽기전략	M	SD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1	GLOB16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4.09	1.07
	2	GLOB2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4.07	.86
	3	PROB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3.99	.89
	4	PROB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3.87	.83
	5	PROB15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3.79	.91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1	GLOB2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3.95	.99
	2	PROB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3.94	.87
	3	PROB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3.76	1.07
	4	PROB15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3.67	.96
	5	GLOB16	나는 “however”와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3.63	1.10

2. 문항 유형에 따른 영어 성취도별 읽기전략 사용 분석

문항 유형에 따라 성취도 별로 읽기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체적 전략과 문제해결 전략, 지원적 전략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5가지 문항 유형 중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형($F = 35.47, p = .000$)과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F = 69.01, p = .000$) 문형에서 영어 성취도별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성취도에 따른 총체적 읽기전략 사용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총체적 읽기전략(GLOB)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결과(N = 286)

문항 유형	학업성취도	총체적 읽기전략 (GLOB) 사용					
		N	M	SD	F	p	Scheffe
내용 일치/불일치	상위권 ^a	73	3.32	.45	35.471	.000	a > b, c
	중위권 ^b	121	2.81	.45			
	하위권 ^c	92	2.80	.45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상위권 ^a	73	3.25	.40	69.016	.000	a < b,
	중위권 ^b	121	3.50	.44			b > c,
	하위권 ^c	92	2.84	.35			a > c
글의 순서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17	.53	2.268	.105	n/a
	중위권 ^b	121	3.37	.65			
	하위권 ^c	92	3.27	.73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32	.61	1.265	.284	n/a
	중위권 ^b	121	3.12	.93			
	하위권 ^c	92	3.03	.48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상위권 ^a	73	2.84	.55	.997	.370	n/a
	중위권 ^b	121	2.94	.78			
	하위권 ^c	92	2.98	.28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내용일치/불일치 문항의 경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상위권과 중위권, 상위권과 하위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M = 3.32, SD = .40$)이 중위권($M = 3.50, SD = .44$)과 하위권($M = 2.80, SD = .45$)보다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에서는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상위권과 중위권, 상위권과 하위권, 중위권과 하위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M = 3.25, SD = .40$)이 중위권($M = 3.50, SD = .44$)과 하위권($M = 2.84, SD = .35$)보다 각 -.25 유의확률 .000, 평균차 .40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위권과 하위권의 평균차는 .6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전략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유형에 따라 성취도 간에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문항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문제 유형에서 성취도 간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내용 일치/불일치 문항에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 평균을 분석한 결과, 상위권($M = 3.71, SD = .46$)이 중위권($M = 3.30, SD = .40$)과 하위권($M = 3.07, SD = .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위권 학습자들도 하위권 학습자들에 비해 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에서도 상위권($M = 3.90, SD = .30$) 학습자들이 중위권($M = 3.69, SD = .55$)과 하위권($M = 3.23, SD = .50$)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빈번한 전략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유의도 검증(N = 286)

문항 유형	학업성취도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사용					scheffe
		N	M	SD	F	p	
내용 일치/불일치	상위권 ^a	73	3.71	.46	51.74	.000	a > b,c b > c
	중위권 ^b	121	3.30	.40			
	하위권 ^c	92	3.07	.37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상위권 ^a	73	3.90	.30	42.638	.000	a > b,c b > c
	중위권 ^b	121	3.69	.55			
	하위권 ^c	92	3.23	.50			
글의 순서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73	.57	13.714	.000	a,b > c
	중위권 ^b	121	3.75	.67			
	하위권 ^c	92	3.32	.66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74	.65	13.699	.000	a,b > c
	중위권 ^b	121	3.58	.83			
	하위권 ^c	92	3.13	.84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58	.57	13.926	.000	a,b > c
	중위권 ^b	121	3.55	.65			
	하위권 ^c	92	3.16	.55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중위권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평균도 하위권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3.714$, $p = .000$).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하위권 학습자($M = 3.32$, $SD = 0.66$)들의 전략 사용이 상위권($M = 3.73$, $SD = .57$) 중위권($M = 3.75$, $SD = .6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하위권($M = 3.13$, $SD = .83$)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의 평균이 상위권($M = 3.74$, $SD = .65$)과 중위권($M = 3.58$, $SD = .8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상위권($M = 3.58$, $SD = .57$)과 중위권($M = 3.55$, $SD = .65$)에 비해 하위권($M = 3.16$, $SD = .55$)의 전략 사용이 통계적으로 적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유형에 따라 성취도별 지원적 읽기전략(SUP) 사용에 있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5가지 문항 유형 중 내용일치/불일치 문형을 제외한 4가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지원적 읽기전략(SUP) 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결과(N = 286)

문항유형	학업성취도	지원적 읽기전략(SUP)사용					
		N	M	SD	F	p	Scheffe
내용 일치/불일치	상위권 ^a	73	2.52	.64	2.591	.077	n/a
	중위권 ^b	121	2.72	.54			
	하위권 ^c	92	2.67	.61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상위권 ^a	73	3.06	.63	42.897	.000	b > a, c
	중위권 ^b	121	3.68	.76			
	하위권 ^c	92	2.93	.41			
글의 순서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23	.57	8.951	.000	a,b > c
	중위권 ^b	121	3.29	.56			
	하위권 ^c	92	3.14	.96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상위권 ^a	73	3.08	.86	8.256	.000	a,b > c
	중위권 ^b	121	3.10	.51			
	하위권 ^c	92	2.77	.50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상위권 ^a	73	2.91	.78	13.466	.000	a,b > c
	중위권 ^b	121	3.04	.58			
	하위권 ^c	92	2.62	.45			

* $p < .05$, ** $p < .01$, *** $p < .001$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형에서는 중위권($M = 3.68$, $SD = .76$)이 상위권($M = 3.06$, $SD = .63$)과 하위권($M = 2.93$, $SD = .41$)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전략 사용 빈도를 보였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하위권 학습자($M = 3.14$, $SD = .96$)들이 상위권($M = 3.23$, $SD = .57$)과 중위권($M = 3.29$, $SD = .56$)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전략 사용을 보였다.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하위권 학습자($M = 2.77$, $SD = .50$)들이 상위권($M = 3.08$, $SD = .86$)과 중위권($M = 3.10$, $SD = .51$)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전략 사용 평균을 보였다.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앞선 유형들과 동일하게 상위권($M = 2.91$, $SD = .78$)과 중위권($M = 3.04$, $SD = .58$)에 비해 하위권 학습자($M = 2.62$, $SD = .445$)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전략 사용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총체적 읽기전략(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 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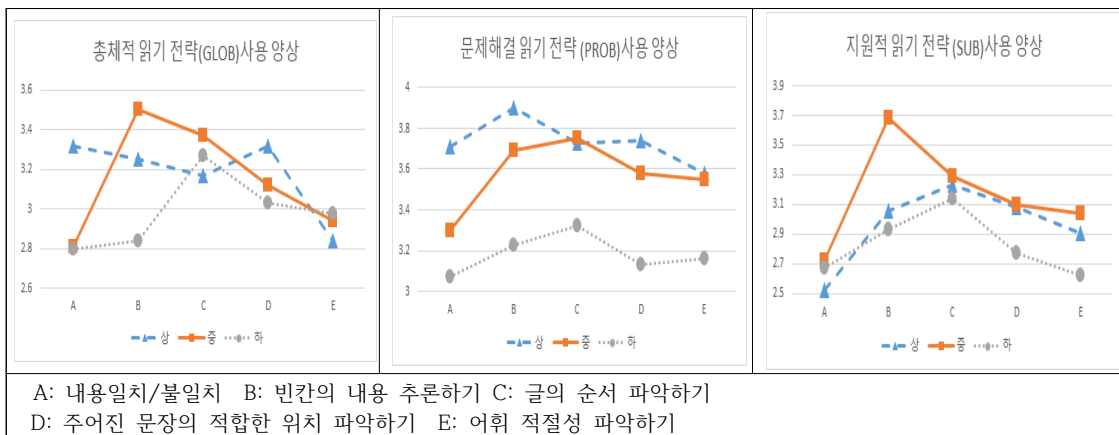


그림 2.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차이 - 집단별 검증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계획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감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략인 총체적 읽기전략(GLOB)은 상위인지 읽기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상위인지 읽기전략은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계획하고 감시, 수정하고 평가하며 학습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Harris and Hodges 1995)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무슨 정보가 요구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전략을 인식하며 자신의 사고를 거쳐 얻어진 결과물을 반성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Flavell 1979). 이처럼 자신의 읽기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인 총체적 읽기전략(GLOB)의 사용은 상위권 학습자들이 중위권과 하위권에 비해 빈번하게 상위인지 전략들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위권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읽기전략들은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르는 단어를 글의 맥락을 활용하여 추측하고 단어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연결사와 같은 단어의 활용으로 글의 흐름을 이용하여 읽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일치/불일치 여부에 대해 글을 읽으면서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공적인 학습자는 읽기를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Kamhi-Stein 2003). 이는 전반적으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이 다른 중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에 비해 모든 문제 유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중위권 학습자들도 상위권 학습자들과 비슷한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이나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하고, 선지를 먼저 읽은 뒤 글을 읽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위권 학습자들은 유독 빈칸 내용 추론하기 문제 유형에서 상위권과 다르게 총체적 읽기전략과 지원적 읽기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상위권 학습자들과는 다르게 문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읽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두괄식, 미괄식 구조를 사용한 영어 지문의 특성을 활용하여 글의 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 유형에서 상위권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을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이러한 전략 사용의 차이가 두 집단의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양상을 보면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상향식 읽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읽거나 글의 난이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단어들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는 포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략의 사용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 사용보다는 회피와 관련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 유형별 학습자의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읽기전략 지도에 대해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험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읽기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고 읽기전략 설문을 실시하여 읽기전략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은 문항 유형별로 사용하는 읽기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전체 학습자들은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의 유형에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어 총체적 읽기전략(GLOB), 지원적 읽기전략(SUP)의 순의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빈칸의 내용 추론 문제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어 지원적 읽기전략(SUP), 총체적 읽기전략(GLOB) 순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영주(2008)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략 사용 빈도 중 총체적 읽기전략(GLOB)이 가장 높았다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순수하게 글을 읽기보다는 시험 문제 풀이 중심의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읽기 시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전략 사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전략 사용 순위를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유형별로 정답을 찾기 위해 적절한 읽기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에는 문항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권 학습자들은 유형별로 정답을 찾기 적절한 읽기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위권 학습자들도 상위권 학습자들과 전략 사용 빈도의 순서는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위권 학습자들은 대체로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기, 어려움을 느낄 때 글 읽기를 포기하기 등의 회피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이 유사한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위권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항 유형과는 관계없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황민영(2009)의 연구에서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순 찍기나 준비전략 단계의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은 읽기 과업에 따라 다른 읽기전략을 구사하며 읽기 과정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반면, 하위권 학습자들은 눈에 띄게 소극적인 읽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교수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권의 학습자들과 달리 중위권 학습자들과 하위권 학습자들은 문항의 목표와는 다른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권 학습자들의 경우에 문항 유형별로 상위권 학습자들과 비슷한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와 같은 어려운 문항에서의 차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위권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읽기전략 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경우에 문제 유형과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같은 읽기전략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세부적인 읽기전략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전략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어와 문법과 같은 기본적 언어 자원이 부족한 하위권 학습자들이 능숙한 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언어적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읽기전략에 대한 교수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가지는 교육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능숙한 독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교사들이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와 주어진 문제 유형에 따라 각 성취도별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하위권 학습자들에게 읽기전략은 언어적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하위권 학

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거나 문항 유형에 적절하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통해 교사는 하위권 학습자들에게 전략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취도별로 명시적 읽기전략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연구가 문제 유형에 대해 상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을 양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가 속해있는 중위권 학습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지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위권 학습자들은 상위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전략 사용과 비교하여, 문제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위권 학습자들에게는 문제 유형에 따라 상·중위권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읽기전략을 제시하고 각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도의 사고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전략 사용을 인식하고 문제 유형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읽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읽기전략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제시된 조각난 생각과 의견들을 조절하고 확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읽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지도가 필요하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의 미숙한 전략 사용은 정의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읽기 과정 중 만나게 되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읽기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적절한 읽기전략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읽기전략 사용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읽기 과정 중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읽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문항 유형별로 사용하는 읽기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읽기전략의 적절한 사용은 학습자가 비단 특정한 영어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영어로 된 텍스트를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전략에 관한 영어 읽기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나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를 접할 때 다양한 전략 사용을 사용하여 언어적 부족을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성취도별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읽기전략 지도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도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학습 전략 학습 방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혜(Kang, J.). 2014.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 동기 및 메타인지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 능력과의 관계(Effects of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s' reading motivation and metacognitive

- reading strategies on reading achievement). 《영어영문학21》(*English 21*) 2-3, 283-306.
- 김일용(Kim, I. Y.). 2016. 상위인지전략 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eta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o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 박영예(Park, Y-Y.). 1999.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A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amo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learner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54-4, 281-308.
- 박지윤(Park, J. Y.). 2018. 중학생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 비교 연구: 끊어 듣기(chunking)과 따라 읽기(shadowing)를 중심으로(*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Chunking and Shadowing*).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배지영, 김규미(Bae, J. and G. Kim). 2018. 고등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과 정의적 영역에 관한 연구: 디지털 영어학습 환경을 중심으로(High school students'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affective domains: Focusing on digital English learning environment). 《교과교육학연구》(*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2-6, 447-461.
- 손영주(Son, Y. J.). 2008. 학업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실태연구(A study on the reading strategies of Korean high school 1st grade students according to the learner's reading proficiency). 《언어학연구》(*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tudies*) 13-2, 75-99.
- 송민정, 이제영, 황치복(Song, M. J., J-Y, Lee and C-B, Hwang). 2018.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전략 사용 실태(High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6, 223-240.
- 송희심(Song, H. S.). 1998. 대학수학능력고사에 따른 영어 읽기 방식과 영어읽기에 대한 메타인지의 변화(Effect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on Korean college students' reading processes and their perceptions of reading in English).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53-4, 265-290.
- 신창욱(Shin, C.). 2005. 두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과정에 대한 연구(A study of two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processes). 《현대영미어문학》(*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3-4, 135-159.
- 안혜선, 배지영(Ahn, H. and J. Bae). 2021.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영어 I 과 II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의 난이도 비교(A study about the analysis of linguistic difficulty among English textbooks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BS-CSAT prep books,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4-3, 39-58.

- 이상기, 배지영, 박현민, 한신실, 이은미, 조명연, 안혜선, 이수열, 민채령(Lee, S., J. Bae, H. Park, S. Han, E. Lee, M. Cho, H. Ahn, S. Lee and C. Min). 2021. 교실 이야기를 담은 영어 읽기 지도(*Let's Read: Reflect, Engage, Attune, and Discuss*). 서울: 한국문화사 (Seoul: Hankookmoonhwasa).
- 이수진(Lee, S.-J.). 2007. 전략 유형별 영어 읽기 지도가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reading strategy training classified by its types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abilities and the attitude toward reading*).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 이재근, 정은숙(Lee, J. and E. Jeong). 2015.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수시 개정 변화에 따른 초등 국정 및 검정 영어교과서 변천과 미래(An overview of the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from national to authorized by 7th National Curriculum). 《초등교과교육연구》(*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21, 73-82.
- 이혜인(Lee, H.). 2017. 영어 독해 전략 지도가 학습자 독해 전략 사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 think-aloud study(*The Effects of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on L2 Learners' Reading Strategy Use : A Think-Aloud Study*).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이효용(Lee, H-W.). 1994. 외국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48, 51-99.
- 이효용(Lee, H-W.). 1999. 영어학습 태도, 동기 및 전략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English Learning Attitudes, Motivations and Strategies and Achievement*).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Doctoral Dissertation,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 정길정, 민찬규, 연준흠, 임재경(Jung, K., C. Min, J. Yun, and J. Lim). 2016. 영어 독해 지도(*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서울: 도서출판 경진(Seoul: Kyungjin Books).
- 정애란(Jung, A-R). 2015. 문항 유형이 독해전략과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Test-Item Type on Reading Strategies and English Language Skills*).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7.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안내 보고서(*2018 SAT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Learning Guide Report*).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황민영(Hwang, M.). 200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시험전략에 관한 연구 - 대학수학능력 평가 외국어영역을 중심으로(*A Study of Test-Taking Strategies of High School Students on Reading Comprehension Test*).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nderson, N. J. 2004.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y awareness of ESL and EFL learners. *The CATESOL Journal* 16(1), 11-27.
- Allwright, D. 1990. *Autonomy in Language Pedagogy*. U.K: Centre for Research in Education, University of Lancaster.

- Casanave, C. P. 1988. Comprehension monitoring in ESL reading: A neglected essential. *TESOL Quarterly* 22(2), 283–302.
- Cohen, A. D. 1990. *Language Learning: Insights for Learners, Teachers and Researchers*. Boston, MA: Heinle & Heinle.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Reading*. Boston, MA: Addison Wesley Longman.
- Devine, J. 1984. ESL readers internalized models of the reading process. In J. Handsome, R. Orem, and B. Taylor, eds., *On TESOL '83*, 95–108. Washington, DC: TESOL.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3), 906–911.
- Harris, T. L. and R. E. Hodge. 1995. *The Literacy Dictionary: The Vocabulary of Reading and Writ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osenfeld, C., V. Arnold, J. Kirchofer, J. Laciura and L. Wilson. 1981. Second language reading: A curricular sequence for teaching reading strategies, *Foreign Language Annals* 14(5), 415–422.
- Hudson, T. 1982. The effects of induced schemata on the 'short-circuit' in L2 reading: Non-decoding factors in L2 reading performance. *Language Learning* 32, 1–25.
- Ikeda, M. and O. Takeuchi. 2000. Tasks and strategy use: Empirical implications for questionnaire studies. *JACET Bulletin* 31, 21–32.
- Kamhi–Stein, L. D. 2003. Reading in two languages: How attitudes toward home language and beliefs about reading affect the behaviors of underprepared L2 college readers. *TESOL Quarterly* 31(1), 35–71.
- Kimura, Y. 1998. *Reading Strategies of Japanese EFL Learners*. Paper Read at the First Symposiu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Strategy, Doshisha Women's College, Kyoto.
- Mokhatari, K. and R. Sheorey. 2002. Measuring ESL students'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 2–10.
- Naiman, N., M. Frohlich, H. Stern and A. Todesco. 1978. *The Good Language Learner*.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O'Malley, J. M. and A. U. Chamot.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MA: Heinle & Heinle.
- Oxford, R. L. 1996.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Manoa,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Oxford, R. L. 2002.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a nutshell: Update and ESL suggestions. In J. C. Richard and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124–1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and A. D. Cohen. 1992.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Crucial issues of concept

- and classification. *Applied Language Learning* 3, 1–35.
- Pearson, P. D. 1993. Focus on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A research perspective. *Language Arts* 70(6), 502–511.
- Pressley, M. 2002. Metacognition and self-regulated comprehension. In A. E. Farstrup and S. J. Samuel, eds., *What Research Has to Say About Reading Instruction*, 3rd ed., 291–309. Newark: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Snow, C. 2002. *Reading for Understanding: Toward an R&D Program in Reading Comprehension*. Rand Corporation.
- Song, H. S. 1997.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in a second language. *The Journal of Humanities* 4, 73–90.
- Stern, H. H. 1975.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4, 304–318.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Secondary

부록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

	문항 번호	질문내용
GLOB	1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2	나는 글의 구성이나 길이와 같은 장르(기사, 과학지문, 소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다.
	3	나는 선지를 먼저 읽은 뒤 글을 읽는다.
	6	나는 문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읽는다.
	16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18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의 내용 중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특징들을 눈여겨 본다.
	25	글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할 부분을 결정한다.
	27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30	글에 대해 추측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본다.
	31	나는 글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PROB	4	나는 구와 절과 같은 의미 단위를 신경 쓰며 읽는다. e.g. I think . that I know that tall boy . standing over there.
	5	나는 주어와 목적어 등과 같은 문장 성분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는다.
	9	나는 어려움을 느끼면 글 읽기를 포기한다.
	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11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12	모르는 단어를 접두어, 어근, 어미로 나누어 의미를 이해해보려 노력한다. e.g. <i>un-friendly</i>
	15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17	나는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다.
	23	나는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한다.
	26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읽는 것을 멈춘다.
SUP	19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20	나는 글을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
	28	글에 제시된 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글의 앞,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읽어본다.
	29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해본다.